+

선생님·후배들 응원 '힘'…"마침표 잘 찍고 올게요"

2026 수능 D-1 광주 고교들

설월여고 올해도 '수능 대박 종' 대동고 밴드부 등 라이브 공연 수험표 받은 후 찾은 시험장선 마음 다잡고 "최선" 한목소리

"수험표를 보고 떨렸던 마음이 선생님과 후배들 응원에 조금은 진정됐어요. 좋은 기운에 힘입어 시험 잘 치르고 오려구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 일 오전 8시께 광주 설월여자고등학교 3학년5반 교실. 책장을 넘기거나 펜을 끄적이는 소리만 간 간이 들릴 뿐 고요했다.

수험생들은 하나라도 더 기억하겠다는 듯 그 간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요약본과 오답노트 등 을 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30분 후 교실로 담임교사가 무언갈 들고 들어

20년 후 교실도 임임교사가 구인실 글고 들어 오자 학생들은 "올 게 왔구나"라며 긴장한 표정 을 지었다.

차례대로 수험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각자의 시험장을 확인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배부가 끝난후 굳어있던 표정의 제자들을 향해 박영덕 담임교사는 "결과보다 노력했던 과정이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수고 많았고 꿈꿔왔던 일들을 꼭해내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 외에도 설월여고 교사들은 '깜짝 영 상'을 통해 제자들을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1-2학년 후배들도 선배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를 선보였다. 운동장에 모여 하트 모양으로 대열을 펼친 이들은 흰색과 분홍색 풍선을 들고 응원곡 'Butterfly'를 열창했다.

선생님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고 교문으로 향한 수험생들은 설월여고만의 전통인 레드카펫을 걸으며 꽃으로 장식된 아치 가운데에서 '수능 대박 종'을 울렸다.

3학년5반 반장 김지은양은 "수험표도 받고 후배들의 응원을 들으니 진짜 실감난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주 대동고등학교에서도 고3 수험생을

/이연상기자

위로하고 응원하는 행사가 펼쳐졌다. 오후 12시30분께 운동장에서부터 교문까지 도 열해 있던 1-2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이 나오자 응원 문구가 새겨진 포스트잇 등을 흔들며 한목 소리로 "화이팅"을 외쳤다.

고3수능 응원을 위해 1년 가까이 준비해 온 대 동고 밴드부는 운동장 한편에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붉은 노을' 등 을 연주하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흥겨운 음악을 듣던 수험생들은 그동안 동고 동락(?)해 온 친구들과 서로를 격려하며 훈훈함 을 자아내기도 했다.

3학년 조서후군은 "후배들이 진심으로 응원 해준 것같아 고맙다"며 "후회 없이 마무리 하고 싶다"고 각오를 표했다.

오후 1시30분께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선 내일 시험 볼 장소를 미리 확인하러 온 수험생들이 눈 에 띄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닫혀 있던 출입문 바깥에 붙은 배치도를 보며 수험생들은 각자의 시험실 위치를 꼼꼼히 확인했다.

서석고 3학년 김사무엘군은 "수험표를 받을 땐 괜찮았는데, 막상 시험장을 와보니 떨린다" 며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자녀와 함께 온 부모도 다수였다. 김은 정(49)씨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떨지 않고, 본 실력을 내길 바란다"고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형우·윤찬웅·이연상기자

광주시, '수능 해방' 청소년 일탈 방지 총력

충장로 등지서 거리 상담·귀가 지도 26일까지 민·관 합동 유해환경 점검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3일 청소년의 일탈 및 가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아 웃리치(거리 상담)'와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 경점검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거리로 몰리는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거나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광주시, 자치구,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쉼터 등 총 11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해 청소 년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활동을 펼친다.

13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삶디자인 센터, 5·18민주광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연합 거 리 상담은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 체계 유입을 목표로 한다.

참여 기관들은 거리 배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귀가 지도, '청소년전화 1388' 등 지원서비

스 안내, 임시쉼터 연계 등을 실시한다.

특히 버스형 이동쉼터를 운영해 따뜻한 음료 와 간식, 간단한 편의 물품을 제공하고 청소년 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돕는다.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청소년 보호와 공감의 문화 를확산할계획이다.

광주시는 13-26일 2주간 '청소년 유해 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54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번화가, 유흥가 등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위반 업소 단속, 술·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점검,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단속 등이다.

윤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수능일은 청소년 들이 해방감 속에 늦은 시간까지 거리로 나서면서 유해 환경 노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거리 상담과 유해 환경 점검을 병행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보호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물에 빠진 승선원 방관해 죽게 한 선장 2심도 '징역 2년'

진도서 낚시어선 전복…조난 신고 無 16명 중상…탑승자 명부 누락 제출도

어선 전복 사고에도 제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이 항 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선주 A(句)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 각,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4일 오전 3시13분께 진도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전복사고를 일으켜 배에탑승해 있던 낚시객 등 3명이 사망하고 16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해상에는최대풍속이초속6m에 이르는돌 풍성바람이불고 있었고 너울성 파도에 해수가 A 씨의 선박에 유입되면서 엔진과 발전기가 침수됐 다.하지만 A씨는 조난통보나 구조요청, 구명뗏목 전개등구호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배는 전복됐고, 이 배에 탑승해 있던 21

명이 바다에 빠졌다. 승선원 중 3명은 숨졌고, 구조된 16명도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선박에선 경유 1천414 ℓ 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A씨는 60대 승객 1명을 기재하지 않은 승선자 명부를 경찰서에 제출해 해경의 구조 작업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결정됐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재영기자

전남서 교통사고 잇따라…2명 사망

전남 지역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1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 시32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던 A (60대·여)씨가 25 t화물트레일러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등록번호: 2023-광주광산-0025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깔린 A씨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트레일러 운전자 B(50대)씨는 음주나 무면허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했다는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로조사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22분께 순천시 동외동 한 주택가의 교차로에선 승용차 간 충돌 사고가 발 생했다.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승용차 한 대 가 인근에 있던 행인 C(50대)씨를 들이받으면 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승용차와 전봇대 사이 에 낀 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 국숨졌다. /안재영기자





상담전화 | 010-3929-1403